

<제 743호>

-주간- **광주 경영계**



광주경영자총협회

GWANGJU ENTERPRISES FEDERATION

광주은행

◆집중호우 피해 업체 긴급경영안정자금 1000억원 특별 지원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업체의 신속한 시설 복구와 금융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특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전남은 물론 이번에 집중적으로 피해를 입은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역 업체(개인사업자 포함) 및 개인이다. 지원 금액은 업체

(개인사업자 포함)는 최대 3억원, 개인은 최대 2000만원 한도이며, 최대 1.0%p(포인트)의 금리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힘든 시기에 집중호우 피해까지 겹쳐 이중고를 겪는 국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면서 "피해를 입은 업체에 신속한 금융 지원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피해 복구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량자산·안정수익’ 확보해 100년 은행 도약할 것”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본점 3층 KJ상생마루에서 2023년 하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영전략회의에서는 각 부문별 우수영업 사례를 공유하고 2023년 2분기 경영 실적과 3분기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 앞서, 취임 1주년을 맞이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을 특별 초청해 “민선 8기 취임 1주년

및 하반기 시정운영 방향”이라는 주제로 소회 및 다짐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은행(고병일 은행장)은 “가장 부족한 요소가 성장의 한계를 결정한다”는 독일 식물학자 유스투스 리비히의 ‘최소량의 법칙’을 예시로 들며 “성장을 위해서는 가장 약한 곳을 찾아 강화시키고 ‘분야별 역량’을 강화를 통해 ‘내부적 역량’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광주신세계

◆현지법인 역할 '지역 맞춤형 ESG 경영' 주목



광주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는 현지법인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민들을 위한 맞춤형 ESG 경영을 선보이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지역 유통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ESG 위원회'를 신설해 주목을 받았다. 이 기구는 환경과 사회·지배구조 개선에 힘쓰자는 ESG 경영을 이끌 뿐만 아니라 지역과의 상생을 위한 현안과 전략을 점검하고 자문하는 역할도 한다.

광주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는 “이제는 매출 성과만으로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며 “ESG 경영을 통해 광주신세계의 가치를 더욱 높이고, 지속개발 가능한 신뢰의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풍암천원국시'에 1000만원 후원



광주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가 서구 '풍암천원국시' 사업에 후원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풍암천원국시는 사회적기업으로 '노인일자리 창출, 우리밀 사용' 장려를 위해 추진된 식당이다. 광주신세계가 전달한 1000만원의 후원금은 식재료와 나눔냉장고 구매, 방학 중 식사지원이 필요한 결식우려 풍암동 학생들에게 천원국시 이용 무료

쿠폰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광주신세계(이동훈 대표이사)는 “우리지역 서구에 일자리 창출과 착한가게 운영, 누구나 나눌 수 있는 나눔냉장고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학생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굶는 일이 없도록 광주신세계가 꼭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I. 회원사 동정

광주테크노파크

◆ 입주기업 협의회 개최



광주테크노파크는 20일 광주경제자유구역청과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제3회 입주기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입주기업 대상 역량 강화를 위해 (주)모모파트너스 김경호 대표의 '정부 지원사업 수주를 위한 사업계획서 작성법 및 노하우'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됐고, 그동안 발굴된 입주기업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검토결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이어졌다.

또한, 입주기업들이 건의한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광주 공동관 운영 건에 대해서도 두 기관이 '2023 대한민국 기후환경에너지대전(KEET)'에 참가해 광주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공동관을 운영 추진키로 했다. 이곳에서 입주기업 제품을 전시하고, 소개 자료집 제작·배포 등을 통해 광주경제자유구역 및 입주기업을 홍보할 예정이다.

금호타이어

◆ 여름맞이 구매고객 사은 이벤트 실시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프리미엄 타이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프리미엄 사은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금호타이어의 마제스티9 SOLUS TA91과 크루젠 HP71, HP51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8월 12일까지 프리미엄 코닥 미니 캐리어(4개 구매시)사은품을 증정한다.

금호타이어(정일택 대표이사)는 “휴가철에도 안전 운전이 제일 중요한 만큼, 출발하기 전 가까운 금호타이어 대리점을 방문해 타이어 점검도 하고 사은품도 받아 안전하고 즐거운 바캉스 준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본 행사는 금호타이어 오프라인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고객에게만 적용됩니다.
* 이벤트 종료후 1주일 이내에 제품 등 교환은 불가하며 환불 불가합니다.
* 반독점법 내부 규정 기종에 따라 별도 신청된 행사 대리점에 대해서만 증정 가능합니다.
* (코닥카메라 프로모션) 증정 제품 기능에 대해, 고객지원센터 프로모션 관련 자재는 타이어바로 이벤트 페이지 참고 바랍니다.

기아(주)AutoLand광주

◆‘The 2024 스포티지’ 판매



기아 AutoLand광주에서 생산 중인 준중형 SUV 판매 1위 스포티지의 연식 변경 모델 ‘The 2024 스포티지’가 18일 출시돼 판매에 들어갔다. The 2024 스포티지는 고객 선호 사양을 추가해 편의·안전성을 향상시키고, 출시 30주년 기념을 기념해 디자인 고급감을 강화한 스페셜 트림 ‘30주년 에디션(30th Edition)’을 새롭게 운영

하는 것이 특징이다.

기아 관계자는 “스포츠지는 1993년 출시 이래 꾸준히 고객의 사랑과 호평을 받아오며 준중형 SUV 시장의 핵심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이번 30주년 기념 모델을 통해 스포티지의 혁신적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강화하고, 그동안 쌓아온 스포티지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준중형 SUV 시장의 1위 브랜드 입지를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적십자사

◆집중호우 수해지역 긴급구호품 지원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허정 회장)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긴급구호품 및 비상식량 305세트를 지원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물품 지원은 충남 200세트, 전북 100세트, 광주·전남 5세트 등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산사태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일시 대피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허정 회장)는 “적시적인 구호 활동을 펼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자체별 피해현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피해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전 직원과 봉사원이 긴급 구호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무진기연

◆광주 161호 아너 가입



무진기연(조성은 대표이사)이 광주 아너 소사이어티 161번째 회원이 됐다.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박철홍)는 19일 광주사랑의열매 2층 나눔문화관에서 조성은 (주)무진기연 대표이사의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 가입식을 개최했다.

무진기연(조성은 대표이사)은 “광주지역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기부를 아끼지 않겠다”며 “아너 가입을 통해 나눔과 기부문화가 확산돼 광주지역의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해양조

◆전남경찰과 손잡고 전세사기 피해예방 캠페인



보해양조(임지선 대표이사)는 20일 전남경찰청과 손잡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앞새주’ 제품 뒷면에 전세사기 예방 홍보 라벨을 부착해 7월 말부터 광주·전남지역에 60여만 병을 공급한다. 라벨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면 전세사기 예방 온라인 페이지로 접속되는데, 여기에는 보해와 전남경찰청이 공동

기획한 ‘전세사기 예방 모의고사’ 테스트가 담겨있다. 전세 계약을 앞둔 입주 예정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진 콘텐츠다.

보해양조(임지선 대표이사)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단순한 홍보라벨 제작보다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캠페인을 진행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I. 회원사 동정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의 달 기념식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1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3년 광주 산업 안전보건의 달 기념식' 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광주권역 공공기관과 유관기관 대표 등 안전보건관계자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을 촉진하고, 범국민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안전보건공단 광주본부(김무영 본부장)는 “이번 기념식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행복한 광주를 위해 모두가 뜻을 함께 한 의미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여러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광주지역 산재예방 및 안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비맥주

◆광주시에 '빛고을 장학금' 1500만원 기탁



오비맥주는 자사 대표 브랜드 '카스' 생산공장이 위치한 광주광역시에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한 '빛고을 장학금' 1500만 원을 기탁했다고 18일 밝혔다. 전달된 장학금은 광주 지역 취약계층 학생들의 생활비와 학업 지원을 위해 쓰인다. 10월에 빛고을 장학생을 선발하여 12월경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오비맥주 관계자는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미래의 주역인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다"며 "오비맥주는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알림 >

본란은 본회 회원사 소식을 게재하고 있사오니 대표 동정, 행사, 제품 소개 등 기타 홍보하실 내용을 보내주시면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 담당 : 최 수 용 대리

○ e-mail : gjef3425@naver.com

오텍캐리어

◆상업용 '고온수 일체형' 히트펌프 보일러 출시



오텍캐리어가 국내 최초 35kW 용량 '고온수 일체형' 히트펌프 보일러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캐리어 스마트 보일러-고온수 일체형' 모델은 35kW용량 80도 고온수 출수가 가능하고 실외기·실내기를 모듈 하나로 구성한 일체형 제품이다. 전체 설치 면적을 줄여 공간 효율을 높였다. 냉매 배관 시공이 필요 없어 설치 소요 시간과 비용은 줄이고 제품 신뢰성을 높였다.

오텍캐리어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화석연료 보일러의 대안으로 히트펌프 보일러가 떠오르고 있다"며 "친환경 고효율 제품 '캐리어 스마트 보일러'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에너지 솔루션 기업의 역할에 충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양에너지

◆탄소중립도시 조성 기여... 새 기업가치 창출



해양에너지(정회 대표이사)는 능동적인 ESG경영, 수소경제실현으로 업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이다. 광주시 5개구와 나주·화순·장성·담양·영광·해남·함평·장흥 등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도시가스 보급과 에너지 전환, 투명한 업무·경영문화 구축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해양에너지의 'Net-Zero' (순배출량 제로) 목표는 지역의 수소 경제 시대

전환의 핵심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에너지(정회 대표이사)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산업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있다"며 "ESG 경영을 기반으로 태양광, 연료전지사업 등을 통한 탄소중립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처, 지속성장을 위한 새로운 가치창출 기회를 모색할 '장기성장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제1613회 금요조찬포럼>

· 주제 : 즐거운 인생 · 강사 : 이홍렬 (코미디언)

1613회 금요조찬포럼은 이홍렬 코미디언을 초청하여 「즐거운 인생」을 100세 시대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성공의 의미는 연령대별로 다릅니다. 10대는 성공한 아버지를 뒀으면 성공, 20대는 학벌이 좋으면 성공, 30대는 좋은 직장에 다니면 성공, 40대는 2차 쓸 수 있으면 성공, 50대는 공부 잘하는 자녀 있으면 성공, 60대는 아직 돈 벌고 있으면 성공, 70대는 건강하면 성공, 80대는 아내가 밥 차려주면 성공, 90대는 전화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성공, 100살은 아침에 눈뜨면 대성공이라고 합니다.

위에 내용 중 해당되는 게 얼마나 있으신가요? 생각 보다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게 없을 겁니다. 해당되는 게 많이 없으면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어 나갈 수 없는 걸까요? 60대 부터 잘 만들어 나가도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방법 중 하나는 걱정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엘리스 교수가 걱정에 대해 정의를 내립니다. 40대는 일어나지도 않는 걱정, 그리고 지나간 일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이 많고 8% 정도가 건강에 대한 걱정입니다. 그중 건강에 대한 걱정만 따져보면 내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내가 건강하다면 걱정 할 필요 없습니다. 건강하지 않는다면 나를 병인가 죽을 병인가 나를 병이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또 만약 내가 죽을 병이면 천당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지옥에 간다 해도 가면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인사하느라고 볼 일 다 못 봅니다.

두 번째 즐거운 대화입니다. 즐거운 수다 수준에 이르기까지 대화를 많이 하면 몸에 좋은 엔돌핀이 생성됩니다. 여성분들은 좀 관찮은데 남성분들은 밖에서 사업 이야기하고 집에 가서는 힘들다는 이야기를 잘 안합니다. 집에서 즐거운 대화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버킷리스트를 하나 만드시면 좋습니다. 제가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실행해 보니 새로운 즐거움이 생기고 이것도 즐거운 인생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사실 60대를 넘어가면 다 해본 것들과 일상에서 재밌는 무언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버킷리스트에는 어린이재단을 후원하기. 또 진땀 한번 키워보는 것, 매년 해외여행 나가보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국토종단하기 등 버킷리스트 9개를 만들고 실행한 것도 있고 현재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10번째 버킷리스트는 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정할 겁니다.

II. 광주경총 소식

제가 이홍렬 쇼를 진행할 땐 기자들이 만나면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땐 얼마나 잘난척했는지 모릅니다. 방송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와 똑같다 계속 노를 저어야 한다 등 별의별 이야기를 다했던 거 같습니다. 지금 저에게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묻는 기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공적인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광주 경총 회원들도 성공적인 삶을 사시길 기원합니다.



사무국 일지 (07.17 ~ 07.21)

07.18 (화)	● 일자리사업 업무추진 보고 (광주광역시)	07.20 (목)	● 노사발전재단 업무협의
07.19 (수)	● 산업안정보건의 날 행사	07.14 (금)	● 1613회 금요조찬 포럼

1. 경제 동향

◆ 경총, 「2024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경영계 입장」 발표 (7.19)

(임금·HR정책팀 02-3270-7454) * 상기 성명은 경총플라자(www.kefplaza.com)에 게시

-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2.5%(240원) 인상된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됨.
 - 금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액 9,860원은 사용자위원이 2024년 적용 최저임금으로 제시한 최종안임.
- 사용자위원들은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바람을 담아 최초안으로 동결을 제시하였으나, 이를 최종적으로 관철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함.
 - 다만 이번 결정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용자위원들이 최선을 다한 결과로, 우리 최저임금이 또다시 고율 인상될 경우 초래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밝힘.
- 모쪼록 금번 최저임금 결정을 통해 글로벌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취약계층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배려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함.
- 아울러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이 시행될 수 있는 토대 마련과 함께, 그간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갈등을 촉발해 온 現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의 제도개선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경총, 「2023 국민건강보험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7.19)

(사회정책팀 02-3270-7309) * 보도자료는 경총플라자(www.kefplaza.com)에 게시

- 전국 만 20세 이상 1,026명(응답자 기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국민 4명 중 3명은 현재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며, 내년도 보험료율의 “인하

Ⅲ. 노동경제동향

또는 동결”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최근 대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누적된 국민부담으로 보험료율 추가 인상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것으로 보임.

① (건강보험료 부담) 현재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수준이 ‘부담된다’는 응답은 제1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19~2023) 시행과 함께 조사를 시작한 2020년 이후 가장 높은 75.6%에 달함. ‘보통이다’는 응답은 20.0%,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5%로 집계

② (2024년 건강보험료율 조정안) 내년도 보험료율 조정과 관련해서는 응답자의 75.8%가 ‘인하 또는 동결’이라고 답함. 보험료율은 ‘인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24.3%였고, 이중 절반 이상인 13.6%가 ‘1% 미만’ 인상률을 요구

③ (‘필수의료’ 강화하는 현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 효율적 지출관리를 기반으로 소아·분만,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지원에 집중하는 현 정부 건강보험 정책 방향에 대해 ‘긍정’ 평가는 65.8%, ‘부정’ 평가는 22.8%로 나타남.

- 재정을 대폭 투입해야 하는 양적 보장성 강화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심화시킨다는 점에서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현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다수가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으로 풀이

④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 올해 보험료율이 7%대에 진입(7.09%)하면서 보험료율 법정 상한(8%) 개정에 대한 공론화 필요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4.8%는 보험료율 법정 상한 개정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긍정적’ 평가는 26.6%에 그침.

- 보험료율 상한 조정은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찬성’ 의견과 법정 상한 내에서 효율적 지출관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의 ‘반대’ 의견이 병존하는 사안으로 국민 다수는 후자에 더 공감하는 것으로 해석

⑤ (건강보험 상병수당 도입) 상병수당제도 도입과 관련해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부정적’이라는 응답(46.8%)이 ‘긍정적’이라는 응답(43.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Ⅲ. 노동경제동향

- 가입유형별로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정' 평가(48.6%)가 '긍정' 평가(42.1%)보다 우세하나, 지역가입자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긍정' 평가(46.3%)가 '부정' 평가(44.2%)에 앞서는 등 혼재된 양상을 보이는 바, 향후 既 시범사업 효과와 건강보험 재정 여건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

◆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860원, 2023년 대비 240원(2.5%) 인상 (7.19)

- 최저임금위원회는 제15차 전원회의(7.19)를 개최하여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9,860원(2023년 대비 2.5% 인상, 240원 인상)으로 결정

- ※ 월 환산액 2,060,740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 시간 수 209시간 (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 : 2.87('20)→ 1.5('21)→ 5.1('22)→ 5.0('23)→ 2.5('24)

-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노·사 최종안을 표결에 부쳐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 * 근로자위원(안) 시간급 10,000원('23년 대비 380원, 3.95% 인상)

- * 사용자위원(안) 시간급 9,860원('23년 대비 240원, 2.5% 인상)

- 재적위원 26명 중 사용자위원(안) 17명, 근로자위원(안) 8명, 기권 1명

<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주요 경과 >

-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 요청(3.31)
- 제1차 전원회의(5.2)를 시작으로 최저임금 논의 시작
- 사업의 종류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한 표결*(제7차 전원회의, 6.22)→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 적용기로 의결

- ※ 구분적용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구분적용 부결

◆ 한국은행, 「경제상황 평가(2023.7월)」 발표 (7.13)

- 한국은행은 국내경기가 최근 수출 감소세 둔화로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으며, 향후 IT경기 개선등으로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이에 따라 2023년 성장률은 지난 5월 전망(1.4%)에부합할 것으로 예상. 다만, 주요국 경제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

Ⅲ. 노동경제동향

- 최근 국내수출은 비IT 및 對미·EU수출이 양호한 가운데 IT도 반도체 수출부진 완화등으로 일부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하반기 중에는 민간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며 수출은 IT 중심으로 개선될 전망
- 향후 성장경로상에는 주요국 경제상황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 미국 등 주요국의양호한 성장세, IT경기 조기 반등 등은 성장의 상방리스크로, 중국경제의 더딘 회복과 리오프닝효과 저조 등은 하방 리스크로 잠재.
- (소비자물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2%대로 낮아짐. 7월에도 둔화
- (경상수지) 경상수지는 5월 들어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하반기에는 흑자 폭이 점차 커질 것으로 예상.
- (고용) 취업자수 증가세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둔화되겠으나 둔화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
- 보건복지, 대면서비스 등에서 노동수요가 양호한 가운데 여성·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러한 수요를 뒷받침하고 있음.

◆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발표 (7.13)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 ※ 한국은행은 2022년 1월(1.25%), 4월(1.50%), 5월(1.75%), 7월(2.25%), 8월(2.50%), 10월(3.00%), 11월(3.25%) 일곱 차례, 2023년 1월(3.50%) 한 차례 인상하였으나, 2월, 4월, 5월, 7월에는 동결 결정
- 금융통화위원회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3%내외로 높아지는 등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주요국의 통화정책, 가계부채 흐름 등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 기준금리를 현 수준(3.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

Ⅲ. 노동경제동향

- 향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 등으로 7월까지는 둔화 흐름을 이어가겠지만 8월 이후에는 다시 높아져 연말까지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전망치(3.5%)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예상.
- 다만, 근원물가는 누적된 비용인상 압력, 양호한 서비스 수요 지속 등으로 금년중 연간 상승률이 지난 전망치(3.3%)를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

◆ 아시아개발은행(ADB), 「2023년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 (7.19)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우리나라의 2023년 경제성장률을 1.3%, 2024년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
- ADB는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 민간소비·투자 부진 등 영향을 반영하여 지난 4월 전망 대비 2023년 성장률을 0.2%p 하향 조정했고, 2024년의 경우 기존 전망을 유지
-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을 2023년 3.5%, 2024년 2.5%로 전망
 - ※ ADB는 에너지·식품가격 등 안정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세 지속을 근거로 '23.4월 전망('22년 3.2%, '23년 2.0%) 대비 '22년은 0.3%p, '23년은 0.5%p 상향 조정
- 한편, 아시아 46개*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서는 중국의 경기회복과 견고한 국내수요 등 상방요인과 수출·산업활동 둔화 등 하방요인이 상존하여 2023년 4.8%, 2024년 4.7%로 전망
 - * ADB의 경제전망은 49개 아시아 역내 국가 중 일본, 호주, 뉴질랜드를 제외
 - ※ '23.4월 전망('23년 4.8%, '24년 4.8%) 대비 '23년은 동일하게 유지, '24년은 0.1%p 하향 조정

◆ 통계청, 「2023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발표 (7.18)

- 청년층(15~29세) 인구는 841만 6천명으로 15세이상 인구(4,537만 9천명)의 18.5%를 차지하였으며, 전년동월(859만 5천명)대비 17만 9천명(△2.1%) 감소
- 청년층 경제활동인구는 425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만 2천명 감소하였고,

Ⅲ. 노동경제동향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는 416만 4천명으로 7천명 감소

- 청년층 취업자는 400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만 9천명 감소하였고, 청년층 실업자는 24만 7천명으로 7만 3천명 감소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416만 4천명) 중 취업시험 준비자 비율은 15.2%로 전년동월대비 1.7%p 하락하였고, 취업시험 준비 분야*는 일반직 공무원(29.3%), 일반 기업체(27.3%),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16.2%) 순으로 높았음.
 - * 취업시험 준비분야의 구성비는 지난 1주간 취업준비자 기준
- 일반 기업체(3.5%p), 교원임용(0.1%p) 준비자의 비중은 전년동월대비 상승한 반면, 기능분야 자격증 및 기타($\Delta 2.5\%p$), 일반직 공무원($\Delta 0.6\%p$), 고시 및 전문직($\Delta 0.4\%p$), 언론사·공영기업체($\Delta 0.2\%p$) 준비자 비중은 하락
- 청년층 경제활동참가율은 50.5%로 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였고, 청년층 고용률은 47.6%로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
- 첫 일자리에 취업할 당시 임금은 '150만원~200만원 미만' (35.7%), '200만원~300만원 미만' (31.3%), '100만원~150만원 미만' (15.7%) 순으로 나타남

Ⅲ. 노동경제동향

2. 노사 동향

◆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으로 결정

- 최저임금위원회는 7. 19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최종 제시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2024년 적용 최저임금을 사용자위원 최종 제시안인 시급 9,860원으로 결정
 - ※ 사용자위원 최종 제시안 : 시급 9,860원(지난해 대비 240원, 2.5% 인상)
 - ※ 근로자위원 최종 제시안 : 시급 10,000원(지난해 대비 380원, 3.95% 인상)
 - ※ 표결 결과(총 26명) : 사용자위원(안) 17명, 근로자위원(안) 8명, 기권 1명
- 경총 등 사용자위원은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과 소상공인의 생계 안정, ▲취약계층 근로자의 일자리 유지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 촉구
- 경총은 최초안인 ‘최저임금 동결’ 을 관철하지 못해 아쉬우나 최저임금 고율 인상으로 초래될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향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토대 마련,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

◆ 고용부 등 주요 부처는 대변인 직급 상향 조정을 통한 정책 홍보 강화에 주력

- 고용부 등 주요 부처는 대변인 직급 상향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나등급→가등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입법예고 기간: 2023. 7. 11~7. 18)
 - 고용부는 ‘고용노동 분야의 증가하는 정책 홍보 수요에 대한 대응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략적 홍보·소통을 위해 대변인의 직무등급을 상향 조정한다’ 는 입장
- 대변인 직급 상향 조정은 이번달 말 시행될 예정으로 고용부는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등 하반기 노동개혁 홍보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

◆ 금융, 금속 분야 산별교섭 난항 지속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가 4월부터 산별교섭을 진행해온 가운데 금융노조는 7.17 교섭 결렬 선언

Ⅲ. 노동경제동향

- ※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융노조는 4. 12 상건례 이후 대표단교섭 등 25차례 교섭 진행
- ※ 금융노조는 7. 18 중노위 조정을 신청했으나 쟁의행위 찬반투표 일정, 파업계획 등은 미정

- 금융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임금 총액 3.5% 인상, ▲사회공헌활동 재원(임금 총액3.2%) 출연을 요구한 반면, 사측은 임금 총액 1.5% 인상 제시

- 또한, 금융노조는 임금교섭과 함께 진행중인「중앙노사위원회」에서 주 4.5일제 도입 등을 요구

-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와 금속노조는 7. 18 산별교섭을 재개했으나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노사 이견 지속